

QR 코드를 통해 새로 모의고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정답 및 해설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2024년 8월 31일부로 제작이 완료된 새로 및 진로 모의고사의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연계 양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독서

분야	제재	새로 및 진로	연계 교재	연계 양상
기술 [8~11]	블록체인 기술	새로 2회 [8~11]	특강 218p	직접
예술 [12~17]	(가) 바쟁의 영화에 대한 입장 (나) 정신분석적 영화 이론	새로 4회 [12~17]	완성 241p	직접

### 문학

분야	작품명	새로 및 진로	연계 교재	연계 양상
고전소설 [18~21]	수산, 「광한루기」	진로 10회 [9~13]	특강 143p	간접
현대시 + 수필 [22~27]	(가)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나)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다) 유본예, 「이문원노종기(摛文院老縱記)」	새로 4회 [31~34] 새로 2회 [31~34]	특강 101p 완성 195	간접 간접
현대소설 [28~31]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새로 3회 [28~31]	특강 187p 완성 253p	직접
고전시가 [32~34]	(가) 정철, 「풍파에 일렁이던 배~」 (나) 정철, 「심의산(深意山) 서너 바퀴 감돌아~」 (다) 조준성, 「호아곡」	새로 4회 [22~26] 진로 12회 [9~13]	특강 298p 특강 318p 완성 195p	간접 간접

■ 공통 영역

✔ 빠른 정답

1	④	2	⑤	3	②	4	④	5	④
6	③	7	①	8	④	9	⑤	10	②
11	③	12	①	13	③	14	⑤	15	①
16	⑤	17	①	18	①	19	③	20	⑤
21	⑤	22	③	23	①	24	④	25	④
26	⑤	27	③	28	④	29	③	30	⑤
31	②	32	①	33	③	34	③		

❓ 해설

[1~3] 독서(독서 이론), ‘글을 보완하는 시각 자료의 역할’

1. ④

④ 지문에서 시각 자료의 용도는 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는 문자가 제공하는 ‘문자 정보’와 시각 자료가 전달하는 ‘이미지 정보’로, 시각 자료의 용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시각 자료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글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메우는 장식적 시각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 ② 독자는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펴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독자는 매력적인 시각 자료에 사로잡혀 읽기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능동성을 발휘해야 한다.
- ⑤ 독자는 글을 읽으며 능동성을 발휘해 낱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2. ⑤

⑤ 글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고 난 뒤, 문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어 글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시각 자료는 글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거나 보완하고 나아가 글의 내용을 확장하는 등 글의 의미를 구성한다.
- ② 시각 자료와 글은 서로 연결되어 독자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
- ③ 시각 자료는 글을 읽을 때 문자 외에 또 다른 학습 단서로 기능한다.
- ④ 독자는 시각 자료가 설명 대상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판단해야 한다.

3. ②

② 그림1은 설명적 시각 자료에 해당하는데,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목적에 더하여 글에서 다른 내용을 보완하는 자료이다. 파피루스 줄기를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는 글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을 보여주어 종이 제작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오답 풀이]

- ① 비행기 그림은 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식적 시각 자료이다.
- ③ 그림2는 글에서 다른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예시적 시각 자료이다.
- ④ 그림3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상형 문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보충적 시각 자료이다.
- ⑤ 글에서 다른 내용을 보완하여 글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보충적 시각 자료이다. 그림3은 이에 해당하지만 그림2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7] 독서(사회), ‘공정한 거래를 위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부당 광고 제한’

4. ④

④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추천·보증은 추천인 혹은 보증인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조건이다. 추천·보증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하는 경우는 이 추천 및 보증이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질 때만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 광고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금지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행위가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한 출판된 저작물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 ④

④ ㉠(이용후기 광고)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하는 광고이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후기는 소비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다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이 금지되는 이유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이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이 가격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 ③ ㉡(이용후기 광고)을 할 때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적극 활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다.
- 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은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사업자 혹은 거래 다음 단계의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이용후기 광고)은 소비자나 소비자 간 직접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한 소비자가 작성한 이용 후기를 사업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광고하기 위해 활용하는 행위이다.

6. ③

③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거래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이것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를 비공개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 ②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상품을 추천·보증할 때에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상품을 실험·검증한 적 없이 주장한다면 이것은 전문적 지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④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 받는 등 사업자와 추천자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사용 후기가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이것이 객관적 내용이며 자신의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게시자가 사업자를 부당하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7. ①**

- ① 지문의 ㉠ ‘붙여’는 ‘그 밖의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라는 문맥에서 ‘조건, 이유, 구실 따위를 딸리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의 ‘붙여’와 의미상 가장 유사하다.

**[오답 풀이]**

- ② ‘나는 수영에 재미를 붙여...’의 ‘붙여’는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③ ‘그는 따뜻한 바닥에 등을 붙여...’의 ‘붙여’는 ‘신체의 일부분을 어느 곳에 대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④ ‘나는 알람판에 게시물을 붙여...’의 ‘붙여’는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⑤ ‘그는 솟에 불을 붙여...’의 ‘붙여’는 ‘불을 일으켜 타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8~11] 독서(과학), ‘블록체인 기술’**

**8. ④**

- ④ 1문단에 따르면 ‘작업증명’은 합의 알고리즘의 한 예이다. 따라서 합의 알고리즘이 ‘작업증명’의 한 예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지문은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다루고 있으며, 4문단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또한 살피고 있다.
- ② 1문단에서 블록체인의 구조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3문단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을 다루지는 않고 있다.
- ⑤ 1문단에 따르면 노드는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인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이다.

**9. ⑤**

- ⑤ 1문단에 따르면 노드들은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하기 전에 그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거나 이증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따라서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 따르면 합의 알고리즘은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합의 알고리즘이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이미 결정된 후에 쓰이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블록은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이다. 따라서 일

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이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블록체인에서 데이터를 무단 변경하기 어려운 것은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무단 변경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 4문단을 통해 데이터를 무단 변경할 수 있다면 보안성이 떨어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의 일종임을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이 낮아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0. ②**

- ② 1문단에 따르면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에 중복 저장되며, 이를 통해 한 노드가 가진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일부 지워지더라도 다른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 복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3문단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는데, 이는 블록체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모든 블록체인 기술에 승인 과정 참여 노드 수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지문을 통해 지워진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에 이러한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내용이 무단 변경되어 연결이 끊어진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모든 블록에 대해 다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어려운 것은 맞으나, 승인 과정 자체가 지워진 데이터를 복원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 ⑤ 1문단에 따르면 노드들은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하기 전에 그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거나 이증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하는데, 이는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끼리는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음을 뜻한다.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증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

**11. ③**

- ③ 4문단에 따르면 노드의 수가 줄어들 때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높아지며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따라서 노드 수가 감소할 때 B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이 높아지고 탈중앙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4문단에 따르면 확장성은 주로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에, 보안성은 주로 노드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보다 속도가 빨라져 확장성이 높아진 것은 맞으나, 노드의 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노드의 수가 늘어날수록 보안성은 높아지나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이 저하되어 확장성은 낮아지게 된다.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에서 노드가 증가한다면 보안성은 높아지더라도 확장성이 높아질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노드 수에 제한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비공개형이다.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의 수가 200개보다 적은 10개이기 때문에 B 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겠지만, 그 기술이 공개형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지문과 <보기>를 통해 A 업체와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의 승인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없다.

**[12~17] 독서(예술), (가) '바쟁의 영화에 대한 입장'  
/ (나) '정신분석적 영화 이론'**

12. ①

① (가)에서 바쟁은 영화를 '세상을 향해 열린 창'에 비유하였고, (나)에서 정신 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를 '몽상'에 비유하였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바쟁은 영화의 형식을 증시하는 '이미지를 믿는 감독'을 비판하고 영화의 내용을 증시하는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하였으므로, 그에 따르면, 형식과 내용 가운데 내용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나)에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는 형식과 내용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에서 바쟁과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관객의 심리가 영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④ (가)와 (나) 모두에서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 양상은 확인할 수 없다.

⑤ (나)에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관의 환경이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게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한편, (가)에서 바쟁은 영화관의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13. ③

③ (가)의 3문단에서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쏫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과 달리 관객은 인물뿐만 아니라 배경도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과 같은 몽타주의 활용은 관객으로 하여금 낯선 느낌, 즉 '생소한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몽타주는 짧은 쏫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과 같은 몽타주의 활용은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 속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편집, 재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롱 테이크는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과 같은 롱 테이크의 활용은 관객이 실제 상황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관객으로 하여금 해당 기법이 사용된 장면의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과 같이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가 활용된다면, 관객은 자율적으로 장면의 인물이나 배경에 시선을 옮기며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14. ⑤

⑤ 바쟁은 감독을 연출 방식에 따라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바쟁에 따르면, 전자가 만들어낸 영화는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반면 후자가 만들어낸 영화, 그리고 열린 결말을 활용하는 영화는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바쟁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 감독의 연출 방식과 의도가 무엇이던, 관객은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작품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는 선지의 진술과 같이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②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이 영화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되려, (가)의 4문단에 따르면 그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바쟁'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③ 바쟁은 연출 방식에 따라 감독의 유형을 나누긴 했지만,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눈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바쟁'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④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바쟁은 변형되지 않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따라서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증시한다는 선지의 진술은 '바쟁'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15. ①

① (나)는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동일시 현상'이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관객은 '영화 장치'의 영향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되고, 3문단에 따르면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 '카메라'와 '영화관의 환경'은 1문단에서 언급된 '영화 장치'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오답 풀이]**

② 현실의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가)의 '바쟁'의 입장으로, (나)와는 무관하다.

③ 영화가 현실을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하여 드러낸다는 것은 (가)의 '바쟁'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에 대해 한 비판으로, (나)와는 무관하다.

④ 관객이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은 몰입된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선지의 진술은 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①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16. ⑤

⑤ 학생이 ㉞에서 감동을 받은 것은 스스로를 '아들'에 일치시켰기 때문이고, 학생이 ㉜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스스로를 '주인공'에 일치시켰기 때문이다. B('정신분석적 영화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학생이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바쟁')의 관점에 따르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하는데, 이는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았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영화 감상문에 따르면, ㉜는 '뻔한 결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사가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의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따라서 A('q 바쟁')의 관점에서 보면, ㉜가 미결정 상태'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③ A('바쟁')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㉞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㉞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고,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㉜에서 활용한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은 A('바쟁')가 높게 평가한 현실감을 부여하는 연출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학생이 ㉜에서 의미함을 떠올린 것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생각한 이후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에서 알 수 있듯 학생은 영화를 보는 도중에 스스로를 주인공과 일치시킬 정도로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B('정신분석적 영화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㉜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영화'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영화는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어, 관객이 영화를 보는 도중에도 스스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17. ①

- ① '개선되다'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가 고쳐져 더 좋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㉔에는 변화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변화의 양상도 '더 좋게 되다'라는 의미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파괴하다'는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헐어 버리다.'는 의미이므로, ㉔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③ '대면하다'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다.'는 의미이므로, ㉔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④ '기용하다'는 '인재를 높은 자리에 올려 쓰다.'는 의미이므로, ㉔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⑤ '해소하다'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㉔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18~21] 문학(고전 소설), 수산, '광한루기'**

18. ①

- ① 춘향은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고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는 이도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의 티 없이 맑은 모습에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이를 통해 춘향이 이도린에게 호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춘향의 찬탄하는 말은 꽃그늘에 숨은 상태에서 은연중에 내뱉어졌기에 이도린이나 김한이 춘향의 이도린에 대한 감정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도린은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춘향이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와 채색 줄로 만든 그네를 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나들이에 나섰다 했을 때, 그녀가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 ③ 김한은 춘향을 불러 오라는 이도린의 명령에, 춘향은 부른다 해도 오지 않을 것이라 답한다. 이를 통해 김한이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을 만나러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이도린은 교방 행수 월매를 기억하려는 김한의 말에 월매와 그네 뛰는 여인을 어찌 비교할 수 있냐고 답한다. 이를 통해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옆집 여자 아이는 풍경을 즐기러 나온 것이지,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19. ③

- ③ 춘향은 꽃그늘에 몸을 감추고, 홀로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는 이도린의 모습에 찬탄한다. 이를 바탕으로, 꽃그늘은 춘향이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춘향은 그네를 타다 광한루 위에서 갑자기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 이를 통해 춘향이 꽃그늘에서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③ 춘향이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을 때, 김한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고 김한을 기다리고자 하지도 않았다. 이를 통해 춘향이 꽃그늘에서 김한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④ 꽃그늘은 춘향이 몸을 숨긴 곳이지, 김한과 이도린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아니다.

- ⑤ 꽃그늘은 몸을 숨긴 춘향을 김한이 이리저리 찾아보다 발견한 장소이지,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한 장소가 아니다.

20. ⑤

- ⑤ 김한은 춘향에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이도린이 춘향을 발한 것과 춘향이 그네 뛰는 것이 모두 우연인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김한은 춘향과 이도린의 만남이 거듭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춘향은 이도린을 한번 만나러 가자는 김한의 제안에 결국 '네 말이 일리가 있다.'고 답함으로써 승낙의 의사를 표하는데, 이를 통해 김한이 이도린과 춘향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도린이 '저것이 금이나, 옥이나?' 하는 것은 그네 뛰는 춘향의 고운 자세를 찬탄하는 의미의 발화이지, 자신의 눈 앞에 보이는 것이 금인지 옥인지 궁금해하는 의미의 발화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발화를 들은 김한 역시 춘향의 미모에 이도린이 감탄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답했으므로, 김한이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김한은 이도린에게 춘향이 교방 행수 기생 월매의 딸임을 밝히고 있다. 기생의 딸은 고귀한 신분이 아니므로, 김한이 이도령으로 하여금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김한은 이도린에게 그네 뛰는 여인의 정체를 설명하기는 하나, '풍류를 즐길 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도린이다. 따라서 김한이 이도린에게 풍류를 즐길 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
- ④ 김한은 춘향에게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며 춘향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깨워 주며 이도린을 만날 것을 권유한다. 따라서 김한은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21. ⑤

- ⑤ [A]와 ㉔(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에서는 각각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었던 배경과 사건에 대한 비평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으나,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는 '오작교에선 선량(仙郎)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 선佳人(佳人)이 그네를 뛰네'라는 시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제1회 봄놀이'라는 표현과 '도련님께서 춘향이 발한 것이 우연히 오늘'이라는 김한의 발화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봄이라는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A]에서는 '광한루가 없었더라면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 '제1회'의 주요 공간인 '광한루'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도린과 춘향의 만남의 계기로 기능하는 광한루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는 '광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 갈 수 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통해 이도린과 춘향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사 전개 의 개연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 ④ ㉔(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은 이도린의 말에 대한 평으로, 독자에게 이도린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점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27] 문학(갈래 복합), (가)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나)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 (다) 유본에, '이문원노종기(攷文院老樞記)'**

**22. ③**

③ (가)에서는 다양한 자연물들을 의인화하거나 '돌비', '은금보화' 등에 역사의 흔적을 비유하거나 '바람과 물과 세월'을 직유의 보조관념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등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냈다. (나)에서는 '생가'를 '물고기네 방'에, 물가의 '살얼음'을 '창'에, '식구들'을 '물고기'에 비유하거나 '마음'을 의인화하는 등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냈다. (다)에서는 '늪은 나무'의 모양새를 '가파른 산등성이', '성난 파도', '둥그스름한 큰 집채' 등에 비유하거나 '늪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어 '암소'와의 유사성을 보이는 등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과거와 다른 현재의 북방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와 (다)에서는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가)에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역사적 상황을 묘사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이를 통해 비극적 현실을 부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와 (다)에서는 역사적 상황을 묘사한 부분이나 비극적 현실을 부각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의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와 (다)의 '아!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톱으로 잘라 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이제야 알겠구나.'에서 영탄적 어조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나'의 대상에 대한 경외감(敬畏感, 敬畏感), 대상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참고로 경외(敬畏), 혹은 외경(畏敬)의 대상은 보통 하늘이나 임금과 같은 존재이다.
- ⑤ (가)에서 화자를 역사적 자아로 상정한다면 여러 향토적 자연물이나 풍습 등의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와 (다)에서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23. ①**

① (가)의 화자는 '태반(胎盤)'으로 돌아왔지만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 /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라고 인식하는 데에서 상실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살얼음이 낀 강과 그 아래 물고기들을 보며 '생가(生家)'를 떠올리며 '마음'에 대하여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생가'에 대한 기억이 화자에게는 '시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곧 화자는 '생가'를 떠올리며 서글픔을 느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가)의 화자가 '소외감'을 느끼려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이 끼리끼리 지내는 모습이 그려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나)의 화자가 과거에 '수치심'을 느꼈었다면 그와 관련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 ③ (가)의 화자는 과거 혹은 현재와의 이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를 '수용'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나)의 화자가 떠올리는 '생가'를 만남을 기약하는 공간으로 볼 근거는 없다.
- ④ (가)의 화자는 희망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나)의 화자는 절망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역사적 자아로서의 특징을 드러낼 뿐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나)의 상황 역시 생명의 섭리와 무관하다.

**24. ④**

④ ㉔('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의 '이지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가 ㉕('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㉕은 슬픔도 시름도 없이 북방을 떠나오는 상황이고, ㉔은 슬픔과 시름에 쫓겨 북방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므로 이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상반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㉑('부여를 속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들')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이들이 '북방'이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곧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㉒('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에서는 자연물이 슬퍼하고 볼들 수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의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연물이 이러한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지 못함을 고려할 때,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③ ㉓('오로초니 뱀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 쏘놀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에서 '~이 ~아/어 ~ㄴ 것도'와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⑤ ㉕('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에서 '없다' 앞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여러 시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지 있게 생각했던 것들로서 이들의 부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④**

④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주체는 '어미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생가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투명한 창'을 통해 물고기들을 보며 '물고기네 방'이라고 하는데, <보기>에서 '얼음 아래의 물고기'들을 보며 '생가를 회상'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가'를 겹쳐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물고기들이 얼음 위의 화자를 인식하는 것을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 방으로 흩어'진다고 한 것과 이후 '나를 못 알아보고'라는 표현, 그리고 <보기>에서 화자가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물고기네'의 모습에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고 한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 본 것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 ③ '젓을 갖 댄 어린 것들'이 '그네끼리 놀고'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어린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유년 시절 생가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음을 고려할 때,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가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유년의 기억이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6. ⑤**

⑤ ㉓('살얼음의 창')는 물가에 이른 화자가 물 위를 덮은 얼음을 '창'으로 인식하여 아래 물고기들의 모습으로부터 과거 어린 시절 지냈던 생가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로 기능한다. ㉔('가둥')은 나무를 떠받치는 것으로서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해 살 듯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로 기능한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화자의 불안이나 그것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나)에서 글쓴이의 의지 역시 확인할 수 없다.
- ② (가)에서 화자의 이상향은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나)에서는 글쓴이가 새로운 깨달음이나 인식을 가지게 된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글쓴이의 태도가 전환되지는 않는다.
- ③ (가)에서 화자는 책임감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
- ④ (나)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있지 않다.

**27. ③**

③ 글쓴이는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다고 말하면서, 일반적인 '풀과 나무'는 이와 달리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조물주'에 대해 언급하며 '이 나무'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연결한다. 곧 글쓴이가 생각하는 '조물주'의 이치가 '이 나무'에 한하여 <보기>에서 말하는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므로, '풀과 나무'와는 무관하다.

**[오답 풀이]**

- ① '이문원 동쪽 늪은 나무'는 인간이 받쳐 주는 기등을 설치함으로써 부러지지 않고 '백여 년'을 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인간이 자연물에 이익을 준 사례이다.
- ② 글쓴이는 나무가 제공하는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 아래에서 대궐안 관청에서 벗어나 숲속에 있는 기분을 느낀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자연물이 인간에게 이익을 준 사례이다.
- ④ '암소'의 뿔이 가진 문제를 인간이 '톱으로 잘라'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인간이 자연물에 이익을 준 사례이다.
- ⑤ 글쓴이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들 가운데에서도 '이문원 동쪽 늪은 나무'와 같이 번성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 둘의 차이는 인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 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인간이 자연물에 이익을 준 사례이다.

**[28~31] 문학(현대 소설),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28. ④**

④ '민도식'은 '권 씨'가 웃는 모습이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이어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 '작은 체구'를 가진 '권 씨'의 얼굴에서 '적어도 이삼십 년은 더 세상을 살아 냈을 법한 관록'이 보인다고 한다. 이를 통해 서술자가 '민도식'의 시선을 통해 '권 씨'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권 씨'가 '웃고 있'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웃는 모습을 통해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과거와 현재의 교차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인물의 경향이 삽화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

**29. ③**

③ '권 씨'는 생산직 공공에는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무직 사원들은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고' 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 '권 씨'는 안전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투쟁하는 일과 ㉠을 마저 입는 것에 대해 투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아이러니를 느껴 웃었다고 볼 수 있다. '권 씨'가 ㉠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은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되어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사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 사원들 중에 ㉠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협약해진 분위기'는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사원들이 '떠들어대'며 만들어졌다. 따라서 ㉠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사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총각 사원 하나'가 회사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 이유를 아내는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아내는 총각 사원이 ㉠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에는 사원들이 '새로 맞춘 제복'을 입고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있다. 따라서 체육 대회에 참석한 전체 사원이 ㉠을 마저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0. ⑤**

⑤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는 제복을 입고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한 사원들이 부르는 사가(社歌)를 듣고 '민도식'이 느끼는 기분이다.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아름다운 웃음')는 '권 씨'가 '아까부터'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짓고 있는 표정이다. 따라서 ㉠은 권 씨가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눈이 휘둥그레진')는 '장상태'가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부른 후 '미스 윤'이 나타낸 반응이다. 따라서 ㉡는 '장상태'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명령하였기 때문에 '미스 윤'이 드러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거듭되는 재촉')는 '밍기적거리'는 '민도식' 때문에 '아내'가 보인 반응이다. 따라서 ㉢은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격정하여 보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숨이 턱 막혀 옴')는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보고 '민도식'이 보인 반응이다. 따라서 ㉣은 전체 사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열한 모습을 본 '민도식'에게 나타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31. ②**

② 민도식은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권 씨의 얼굴을 보고 그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여겼기에 이 '눈'에 선뜻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민도식'이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근거로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민도식'은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행위를 '경영자'의 숨은 의도라고 파악하며 '나머지 절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민도식'은 '동립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민도식'은 아내에게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다'고 말하면서도 아내의 재촉으로 인해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게 된다. 따라서 '민도식'은 '동립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민도식'은 자신을 '사복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자신 없이도 '체육 대회 개최식'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도식'은 집 밖을 나오기 무척 꺼려했을 뿐만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제1 공장' 정문 앞에서 '민도식'은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하는' '민도식'은 '동립산업'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볼 수 있다.

**[32~34] 문학(고전시가), (가), (나) 정철의 시조 2수 / (다) 조준성, '호야곡'**

32. ①

① (가)의 '허술한 배 두신 분네', (나)의 '임아 임아', (다)의 '아이야'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청자를 호명한 후 (가)에서는 '조심 하소서', (나)에서는 '짐작하소서', (다)에서는 '구력 망태 찾아라', '도롱이 샷갓 차려라', '죽조반 다오', '소 먹여 내어라'와 같은 방식으로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가)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참고로 '풍랑'과 '구름'은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유대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에서도 대상을 의인화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오뉴월 한낮'에 '된서리'와 '자취눈'이 내린다는 것은 화자의 심정이나 '온 놈이 온 말을 하'더라도 '임'이 경계해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 ③ (가), (나), (다)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한 미래에 대한 전망도 찾을 수 없다.
- ④ (가)의 '어디로 갔단 말인가'에서 물음의 방식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풍파에 일렁이던 배'에 대한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 (나)의 '자취눈 내렸거늘 보았는가'에서 물음의 방식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임'에게 읊소하기 위한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가)에서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계절의 변화상이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 (나)에는 '오뉴월 한낮'에 '된서리'와 '자취눈'이 내린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거나 허황된 말이 있을 수 있으니 '임'이 경계해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므로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름에서 겨울이 되었다는 표현이 아닌 여름에 눈이 내리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냈다고 할 수도 없다. (다)에는 '고사리', '도롱이', '샷갓', '따비' 등에서 계절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나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냈다고 보기는 힘들다.

33. ③

③ <제1수>의 종장은 고사리가 자랐을 테니 캐러 가자는 의미이지 화자의 격정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제3수>의 종장의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 꼬'라는 화자의 물음은 종장에서 태평한 세월에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는 답으로 갈무리되고 있다. 즉, 농사를 같이 할 사람을 구하는 것에 대한 격정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각 수의 첫 음보를 '아이야'로 통일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제1수>에서는 '구력 망태'를, <제2수>에서는 '도롱이', '샷갓', '낙시대' 등의 생활 도구를 언급하였으며 이는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제1수>의 종장에서는 '나물'을, <제3수>의 초장에서는 '죽조반'을 언급하여 간단한 먹을거리를 먹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4수>의 종장 첫 음보에서 '어즈버'라는 감탄 표현을 통해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34. ③

③ '심외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오뉴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본다면, (나)의 초장과 종장에서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임에게 읊소하고, 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판단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화자 자신이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풍파 속에서 고난을 겪는 배에 대한 (가)의 초장의 내용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신진 관료라면, 화자는 신진 관료에게 정치적 위기의 조짐이 있는데 어찌 처음 나왔느냐고 말하며 '조심하소서'라고 당부하고 있으므로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다.
- ④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상황이고 '임'이 임금이라면, 화자는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도 이를 임금이 직접 짐작, 곧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해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화자는 고기에게 물고기를 낚기 위한 갈고리가 없는 낚시라는 점에서 자신이 물고기를 잡고 자 함이 아니라 흥을 즐기기 위함이니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화법과 작문 영역

### ✔ 빠른 정답

35	⑤	36	②	37	①	38	⑤	39	②
40	⑤	41	④	42	③	43	②	44	④
45	④								

### ? 해설

#### [35~37] 화법

35. ⑥

- ⑤ 발표자는 발표 초반에 제시된 효과음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을 활용하였다. 또한 발표 후반부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을 활용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 이후에 발표자가 스스로 효과음의 정체를 밝히고 있으므로 ㉠은 의견을 듣기 위해 활용된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 역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활용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대상의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된 것은 ㉠ 이후에 등장하는 통계 자료이며, ㉡은 대상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과 무관하다.
- ③ '잡아 주는 과정부터 살펴볼게요.'를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말로 볼 수 있겠으나, ㉠과 ㉡은 발표 순서의 안내와 무관하다.
- ④ ㉠은 문제 제기를 위해 활용된 것이 아니며, ㉡ 역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 아니다.

36. ②

- ② 차량이 충돌할 때 탑니를 돌아가게 하는 장치는 [자료 2]에 해당하며, ㉠에서 제시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자료 1]은 급정거 시 피가 더 이상 풀리지 않게 잠그는 장치로, ㉠에서 제시되었다. 자료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바깥쪽 탑니에 걸려 띠를 잠그는 역할을 한다.
- ③ [자료 2]는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탑니를 회전시켜 띠를 감아 당기는 장치로, ㉠에서 제시되었다.
- ④ [자료 3]에서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2점식에 비해 3점식 벨트에서 추가된 어깨 위 고정 점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에서 제시되었다.
- ⑤ [자료 3]은 3점식 벨트에서 추가된 고정 점의 위치를 설명함으로써, 3점식 안전벨트가 2점식 안전벨트보다 몸의 더 많은 부분을 잡아 주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제시되었다.

37. ①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통해 안전벨트가 중요하다는 기존의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을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② '학생 1'은 발표에서 제시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가 출처가 분명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학생 2'는 제시된 통계가 뒷자석 안전벨트의 효과는 다루지 않고 조수석 안전벨트의 효과만 다루고 있어 발표에 제시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 ③ '학생 2'는 발표자가 안전벨트의 원리를 몸을 잡아 주는 과정과 띠를 풀어 주는 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방식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④ '학생 2'는 띠를 잠그는 장치를 활용하여 몸을 잡아 주는 과정을 흥미롭게 여기고 있고, '학생 1'은 안전 교육에서 이와 원리가 비슷한 장치에 대해 배운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 ⑤ '학생 1'은 안전 교육 때 배웠던 내용을 활용하여 안전벨트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학생 2'는 안전벨트에 적용되는 다른 원리가 있는지를 추가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

#### [38~42] 화법, 작문

38. ⑤

- ⑤ '별들의 밝기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겠어'에서 제시된 방안의 효과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직전 발화를 재진술한 내용은 없다.

#### [오답 풀이]

- ① 직전 발화에서 언급된 영조 때의 혜성 관측 기록에 대하여, '그 관측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라고 물음으로써 관측 기록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② '좀 멋있게 보여서 걱정이네'를 통해 직전 발화에서 물은 전시물의 형식과 관련된 고민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좋은 생각 있어?'를 통해 전시물의 형식에 대한 대안을 요청하고 있다.
- ③ '영상은 생동감이 있어서 좋긴 한데'를 통해 직전 발화에서 제시된 전시물을 영상의 형태로 만들자는 제안의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행사 전까지 제작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응'을 통해 사람들이 쉽게 그럴 수 있겠다는 직전 발화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지리 동아리가 지역 명소를 표시한 활동지를 활용한 유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39. ②

- ② '학생 1'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라는 물음을 통해 해설 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묻고 있기는 하지만, '해설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묻은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전시물은 어떤 형식으로 물을 거야?'라는 물음을 통해 점검한 내용이다.
- ③ '별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거야?'라는 물음을 통해 점검한 내용이다.
- ④ '별자리 그리기 체험은 투명 카드에 야광 펜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준비하기로 했잖아? 얼마나 준비됐어?'라는 물음을 통해 점검한 내용이다.
- ⑤ '투명 카드와 야광 펜 외에 필요한 것 더 있어?'를 통해 점검한 내용이다.

40. ⑤

- ⑤ '학생 3'은 (가)에서 '우리 옛 별자리의 모양이 서양 별자리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거야.'라고 언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서양과 조선의 별자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니 쉽게 이해되었어요'라는 이해가 잘되었다는 반응이 제시되었다. 이 반응과 관련하여, (나)에서는 '이렇게 서양 별자리와 대조해 설명하니 쉽게 이해된다는 반응이어서 함께 이야기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라는 설명 방식 선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시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 1'이 '남은 예산으로 별 스티커랑 참여 후기 쓸 메모지를 구입해서 곧 나눠 줄게'를 통해 구입 물품 배분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에서 제시된 체험하지 못해 속상했다는 반응과는 무관하다. 체험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이미 준비한 물품인 '카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② '학생 2'가 '별들의 밝기 차이도 카드에 나타내면 좋겠어'를 통해 별들의 밝기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의 재미있었다는 반응과는 무관하다. 재미있었다는 반응의 이유는 '전우, 직녀 이야기가 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③ '학생 2'가 혜성 관측 기록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의 놀라웠다는 반응과는 무관하다. 놀라웠다는 반응의 이유는 '학생 2'의 발화에서는 언급

되지 않은, '해성 관측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도 있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④ '학생 3'이 '조선 시대 해성 관측을 당시에 직접 취재한 것처럼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를 통해 역사 신문 형식 활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에서 '역사 신문으로 알려 주어서 지금 현재에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라는 현장감 있다는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나)에서 전시물의 형식 선택에 대한 인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41. ④

- ④ 축제에서 동아리가 진행한 '전시 활동', '체험 활동', '관측 행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 카드가 부족해 발길을 돌린 사람들도 있어'에서 체험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서술한 내용은 없다.
- ② 전시 활동에서 활용한 '역사 신문'의 특징을 분류해 서술한 내용은 없다.
- ③ '우리 친문 동아리는 8월마다 개최되는 지역의 친문 축제에 올해도 참가했다'를 통해 동아리가 행사에 작년과 같이 참가했음을 추론할 수 있으나, 동아리의 참가 분야를 작년과 대비해 서술한 내용은 없다.
- ⑤ '이번 축제를 통해 조선 천문학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동아리 친구들과 사이가 돈독해져서 행복했다'를 통해 축제에서 참여한 경험에서 얻은 의미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묻고 답하는 방식이 활용된 것은 아니다.

42. ③

- ③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해, 관측 행사에서 본 별뿔별의 모습은 '까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뿔별의 반짝이는 모습'과 같이 구체화되었다.

**[오답 풀이]**

- ① 내년 축제의 참여 의향에 대한 초고의 서술, 즉 '내년 축제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는 삭제되지 않았다.
- ② 관측 행사 도우미의 참여 조건에 관한 초고의 서술, 즉 '관측 행사 도우미로는 전시 체험 행사에 참가한 동아리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위치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삭제되었다.
- ④ 축제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내용, 즉 '이번 축제를 통해 조선 천문학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동아리 친구들과 사이가 돈독해져서 행복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
- ⑤ 관측 행사 도우미로서 한 일에 대한 소감은 추가되지 않았다.

**[43~45] 작문**

43. ②

- ② 체육 공간에 대한 조성 방안을 '체육관 내부 농구대 뒤편의 넓은 여유 공간', '체육관 내부 원편의 비어 있는 비포실', '체육관 2층 창고'와 같이 공간별로 제안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체육 공간 조성을 건의한 근거가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학술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없다.
- ③ 체육 공간 조성에 따른 문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체육 공간의 조성을 위한 준비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체육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이나, 그에 대한 반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4. ④

- ④ '공간 재조성을 통해 다양한 체육 환경이 마련된다면'을 통해 체육관 공간별로 다양한 체육 공간을 조성하자는 글의 흐름을 잘 포괄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각자에 맞는 체육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건강하고 활력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를 통해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다수의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학교 체육관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는 건의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는 무관하다.
- ② '학교 체육 기기의 노후화'는 글에서 제기한 문제와 무관하므로 글의 흐름에 어긋난다.
- ③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체육 활동이 체육관 밖에서도 이어지'도록 해 달라는 것은 학교에서 각자에게 맞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 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의 취지와 무관하므로, 글의 흐름에 어긋난다.
- ⑤ 글에서 활용하고자 한 공간 중 '농구대 뒤편의 넓은 공간'은 '구기 종목을 수행할 공간'과는 무관하며, '공간 재조성을 통해 구기 종목을 수행할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건의의 취지와 무관하다. 따라서 이는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45. ④

- ④ 학교에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는 체육 공간이 미비한 것이 지문에서 제시한 문제 상황이다. 그런데 ㄱ-1과 ㄴ을 같이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공간이 조성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더 다양해진다'는 내용을 도출할 수는 없다. ㄱ-1을 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체육 활동은 주로 '소집단 활동', '체력 단련 활동', '구기 종목 활동', '춤' 등이고, 이에 맞는 시설을 마련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들 활동 외의 더욱 다양한 활동을 선호하게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ㄴ의 내용에 따르면 체육 활동을 선호하지 않던 사람이 체육 활동을 선호하게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ㄱ-1에 따르면, 학생들은 '배드민턴, 탁구 등 소집단 활동'을 가장 선호(36%)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3문단에서 '소집단 체육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ㄱ-2에 따르면, 공간 부족으로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45%, 시간 부족으로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15%로 전자가 후자보다 세 배나 많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서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는 1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ㄴ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신체 관리 운동은 근육량 증가, 대사 기능 향상 등 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해 정신적으로도 유익하다. 5문단에서는 '개별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어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신체 관리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ㄴ의 내용을 활용하면 신체 관리 운동이 건강에 주는 이점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ㄱ-2에 따르면,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 중 일부(35%)는 '체육 활동에 대한 흥미 부족'이다. 또한, ㄴ에 따르면 '춤추는 즐거움이 체육을 좋아하지 않던 학생들의 동기를 높여 다른 체육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을 활용하면 체육 활동에 흥미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춤을 추는 즐거움이 체육 활동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4문단에서 춤의 이점을 추가로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와 매체 영역

빠른 정답

35	④	36	③	37	④	38	①	39	⑤
40	①	41	③	42	②	43	④	44	④
45	②								

해설

[35~36] 언어

35. ④

④ '여기는 그저께 낫만큼 더웠다.'의 '그저께'는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인 명사이고, '꽃이 그저께 피었다.'의 '그저께'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인 부사이다. 따라서 각 '그저께'는 서로 다른 품사와 문장 성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다.'의 '그저께'는 보격 조사인 '가'와 결합된 명사이고, '그저께 본 달은 매우 밝았다.'의 '그저께'는 부사로 서로 품사가 다르다.
- ②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은 명사이고,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의 '그저께'는 부사로 서로 품사가 다르다.
- ③ '첫눈이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는 부사어로 사용된 부사이고,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의 '세계적'은 관형어로 사용된 관형사로 서로 품사와 문장 성분 모두 다르다.
- ⑤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다.'의 '세계적인'은 명사 '세계적'과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 '-니'이 결합된 것으로서 명사에 조사와 어미가 결합한 문장 성분이라 할 수 있지만,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으로'는 명사 '세계적'과 부사격 조사 '으로'가 결합한 문장 성분으로 어미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36. ③

③ ㉠의 '바퀴'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고, ㉡의 '바퀴'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바퀴'는 ㉠에 해당한다. 그리고 ㉢에서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① ㉠의 '마당'은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고, ㉡의 '마당'은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마당'은 ㉠에 해당한다. 하지만 ㉢에서 자립 명사로 사용되지 않았다.
- ② ㉡의 '약간'은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고, ㉣의 '약간'은 부사로 사용되었으므로 '약간'은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서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④ ㉣의 '가지고'는 보조 동사로 사용되었고, ㉤의 '가지고'는 본동사로 사용되었으므로 '가지고'는 ㉢에 해당한다. 하지만 ㉣에서 본동사로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의 '버렸다'는 본동사로 사용되었고, ㉡의 '버렸다'는 보조 동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버렸다'는 ㉢에 해당한다. 하지만 ㉣에서 본동사로 사용되지 않았다.

37. ④

④ ㉠('들볶을')은 연음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연음되어 비표준 발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적절한 수행 결과가 된다.

[오답 풀이]

- ① ㉠('인류가')는 ㉡(유음화)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ㄹ'의 비음화)이 적용되어 비표준 발음이 되었다.
- ② ㉡('순환론')는 ㉢('ㄹ'의 비음화)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유음화)가 적용되어 비표준 발음이 되었다.
- ③ ㉢('코끝이')는 ㉣(구개음화)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적용되지 않은 채 연음이 되어 비표준 발음이 되었다.
- ⑤ ㉣('봄여름')는 ㉡(ㄴ 첨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연음이 되어 비표준 발음이 되었다.

38. ①

① ㉠ '묘광이 ~ 되시고'라는 현대어 풀이로 보아, 높임표현 '드외시고'는 주제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妙光(묘광)'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은 '妙光(묘광)'이다.

㉡ '묘광이 ~ 이오시며'라는 현대어 풀이로 보아, 높임표현 '니스시며'는 주제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妙光(묘광)'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은 '妙光(묘광)'이다.

㉢ '부처께 ~ 드리되'라는 현대어 풀이로 보아, 높임표현 '후스되'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를 통해 문장의 객체인 '부터'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은 '부터'이다.

39. ⑤

⑤ '나는 [ 그가 못 읽은 ] 소설을 이미 다 읽었다.'에서 안긴절은 '그가 못 읽은'으로, '소설'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다. 이때 안긴절에는 부정부사 '못'이 사용되어 짧은 부정 표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고, '-었-'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안은문장의 사건시는 발화시보다 앞선다. 따라서 <보기>의 [조진]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그는 한동안 [ 차갑지 않은 ] 음식만 먹었다.'에서 안긴절은 '차갑지 않은'으로, 음식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다. 안은문장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지만, 안긴절에는 '-지 않-'이 사용되어 긴 부정 표현이 나타났으며 부정부사를 활용하는 짧은 부정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었-'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안은문장의 사건시는 발화시보다 앞선다.

② '그는 [ { 바쁜 } 업무들이 안 끝났다고 ] 통보했다.'에서 안긴절은 '바쁜'과 '바쁜 업무들이 안 끝났다고'로서 각각 '업무'를 수식하는 관형사절과 부사어로 기능하는 인용절이므로 안긴절이 중첩되어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기>의 [조진] 가운데 안긴절이 한 번만 나타날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부사 '안'이 사용되어 짧은 부정 표현이 나타났으며, '-였-(했 → 하였)'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안은문장의 사건시는 발화시보다 앞선다.

③ '나는 [ 결코 포기할 하지 않겠다고 ] 결심했다.'에서 안긴절은 '나는 결코 포기할 하지 않겠다고'로서 인용절이다. 안긴절에는 '-지 않-'이 사용되어 긴 부정 표현이 나타났으며 짧은 부정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였-(했 → 하였)'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안은문장의 사건시는 발화시보다 앞선다.

④ '나는 [ 그 버스가 제때 못 올 ] 것을 예상한다.'에서 안긴절은 '버스가 제때 못 올'으로, '것'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다. 또한 부정부사 '못'이 사용되어 짧은 부정 표현이 나타났으며, '-ㄴ-'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안은문장의 사건시와 발화시는 일치한다.

**[40~45] 매체**

**40. ①**

- ① ㉠에서 '회경'은 회의할 내용을 차례대로 제시하며, 대화 참여자에게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에서 '한빛'은 '승민'의 발화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볼 수 없다.
- ③ ㉢에서 '민하'는 '재환'이 이야기한 '노래 대회에서 우승한 친구'의 영상 링크를 전송하여 '재환'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지, '재환'의 의견에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④ ㉣에서 '회경'은 '한빛'의 의견에 동의한 후 물음표를 통해 마지막 '사람을 만나다' 면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한빛'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 ⑤ ㉤에서 '윤찬'은 자신이 앞서 말한 1학기에 많이 빌린 책 목록을 찾아 전송하고 있지, '회경'이 자신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41. ③**

- ③ 뉴스레터 구독자는 요약된 기사 아래의 '전문 보기'를 통해 요약된 기사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 보기'를 통해 이전 호 뉴스레터를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뉴스레터는 학생회 누리집에서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한 구독자에게 발송된다.
- ② 뉴스레터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마다 '우리끼리 소곤소곤'이라는 이름으로 발송된다.
- ④ 뉴스레터 구독자는 '제보하기'를 통해 기사의 내용 오류, 궁금한 점이나 제보할 내용 등 기사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다.
- ⑤ 뉴스레터 구독자는 '이번 호는 만족했어요.'와 '이번 호는 불만족했어요.'를 통해 이번 호 뉴스레터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할 수 있다.

**42. ②**

- ② '따끈따끈 소식'의 '2) 우리 학교 도서관 인기 도서 공개'에는 구독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정희'와 '윤찬'의 대화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1학기에 많이 빌린 책 1위부터 10위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서 대출을 많이 한 학급 순위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따끈따끈 소식'의 '1) 운동장 야영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비결'에는 구독자 관심사에 대한 '승민'과 '한빛'의 대화를 반영하여, 운동장 야영 신청서 작성 비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사람을 만나다'의 '1) 노래 대회 우승자가 우리 학교에 있어요!'에는 면담 대상자의 화제성에 대한 '재환'과 '민하'의 대화를 반영하여, 노래 대회 참여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④ '사람을 만나다'의 '2) 정년 퇴임 기념 면담~'에는 면담 시기의 시의성에 대한 '범석'과 '수민'의 대화를 반영하여, 정년 퇴임을 앞둔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⑤ '학생회 소식'에는 기사 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혜정'과 '지호'의 대화를 반영하여,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3. ④**

- ④ '준호'는 글의 정렬 방식에 변화를 주어 스마트폰 사용 시 시간대별 유의 사항을 부각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준호'는 글에서 《스마트폰 사용 현황 및 분석》,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실천 방안》의 소제목을 활용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준호'는 글에서 일주일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자료'를 활용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준호'는 글에서 '지난주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인 '3시간 정도'의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준호'는 그래프에서 /, \ 와 같은 화살 모양의 표지를 활용해 주말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주목하도록 표시하고 있다.

**44. ④**

- ④ '꿈자랑'은 '준호'가 언급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일지 작성, 전자책 읽기 등의 활용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용도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친하리'는 '준호'가 언급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평일보다 주말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은 이유가 봉사활동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② '역사랑'은 '준호'가 언급한 영상 시청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에 대한 영상을 추가적으로 시청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역사랑'은 '준호'가 언급한 누리 소통망 활용 목적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누리 소통망을 통해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역사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하였다.
- ⑤ '꿈자랑'은 '준호'가 언급한 일지 작성의 효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진작가가 되기 위한 일지를 작성해 올리겠다는 계획을 드러내었다.

**45. ②**

- ② ㉡(주요)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중 영상 시청과 게임이 중심이 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및)을 통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③ ㉢(최근)을 통해 요리사로서의 꿈을 꾸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④ ㉣(게다가)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주말에 많았던 이유를 더 제시하고 있다.
- ⑤ ㉤(편)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 시간 중 영상이나 게임 시간보다 누리 소통망 사용 시간이 적은 경향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

## 정답 및 해설